

‘칸 라이언즈 서울 페스티벌’ 10월20일~22일 인류에 공헌을! ‘Thank You Creativity’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300여편 상영-전시 씨네큐브서
반기문 총장 ‘지속성장목표’ 호소 세미나 단독 녹화중계
테리 새비지 칸 라이언즈 회장 ‘수상 비법’ 특별 강연
칸 주요 세미나 녹화중계... 심사위원-수상자 등 연사로

올해 칸 국제광고제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뒤흔든 기업들의 캠페인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기부와 나눔, 인류에 발현을 화두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칸 라이언즈 무대에 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성장 목표)였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WPP 등 세계 6대 광고주 회사 회장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칸 라이언즈에 참석한 수천명의 광고인들에게 기근, 인권, 여성, 난민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7가지의 목표들’을 주제로 캠페인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사 참조 :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4891>)

6인의 광고계 회장들이 이에 화답, 각기 한두가지의 목표를 맡아 집중적으로 기업 캠페인에 반영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칸 라이언즈 서울 페스티벌에서 이 세미나를 처음 녹화 중계합니다.

지난 6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4회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 칸 국제광고제)에서 주목을 받았던 세미나와 캠페인 수상작들이 한국에 선보입니다.

제20회 ‘칸 라이언즈 서울 페스티벌(www.canneslions.co.kr)’이 오는 10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광화문 씨네큐브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인류의 마음을 뒤흔든 글로벌 캠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칸 현지에서 벌어졌던 1백여개의 세미나 토론회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12개 세션을 한글 번역 자막과 함께 고화질로 상영하는 ‘세미나 스크리닝(Seminar Screening)’은 유엔, 구글, 삼성, 유니레버, 어도비, 버커킹 등 세계적 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BBDO, PHD, AKQA, BrandOpus, 360i, Quantcast 등 굴지의 크리에이티브 대행사들의 인사이트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노션의 김종필 CD, TBWA코리아의 김재우 CD, 올해 스파이크스 아시아 스피커인 제일기획 김민아 CD 등 국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크리에이티브들이 연사로 나섭니다.

올해 칸 라이언즈에서 금상을 받은 서비스플랜코리아의 엄빌 대표, KT의 IoT와 IMC 책임을 맡고 있는 홍재상 상무, 지난해 칸에서 초청 강연을 했던 디지털 캠페인의 떠오르는 강자 이

노레드의 박현우 대표 등 칸을 빛냈던 스타들도 서울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대중음악 평론가로 크리에이티브티와 음악의 '케미'를 흥미롭게 설명해 줄 임진모씨 와 글로벌 이미지 서비스 기업인 포토리아의 특별강연도 주목됩니다.

20일 첫 날엔 칸 라이언즈의 트렌드를 한 눈에 설명해주는 '칸 라이언즈 코리아' 이연수 부사장의 브리핑으로 문을 열고, 마지막 날인 22일엔 테리 새비지(Terry Savage) 칸 라이언즈 회장이 직접 무대에 나서 페스티벌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크리에이티브티 비화를 들려줍니다.

필름 부문 수상작 100여 편을 매일 저녁 2회씩 상영하고, 인쇄·옥외 부문 수상작 100여 편을 씨네큐브 홀에 전시-상영합니다.

2016년 칸 라이언즈에서 '올해의 크리에이티브 마케터' 상을 받은 삼성전자의 수상작들도 씨네큐브홀에 전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17개국에서 펼친 캠페인으로 27개의 사자(Lions)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도 금상 3개, 은상 8개, 동상 18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역대 칸 라이언즈에서 모두 103개의 사자 트로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기사 참조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07170>)

1996년 시작한 '칸 라이언즈 서울 페스티벌'은 마케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학생 등 현업 광고마케팅 전문가들과 예비 크리에이티브들이 그 해 칸 라이언즈의 주요 세미나와 수상작을 관람하고 토론하는 국내 최고 최대의 크리에이티브티 축제입니다.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은 1953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홍보마케팅 축제로 '크리에이티브티의 올림픽'으로 불리웁니다. 매년 6월 셋째 주 프랑스 칸에서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광고대행사, 기업 마케터, 미디어 종사자, 교육계, 보건의료계 전문가 등 크리에이티브티 업계 1만5천여명의 인사들이 모여 8일간 150여회의 세미나·워크숍과 크고 작은 800개의 세션을 엽니다.

올해엔 필름, 인쇄, 사이버 등 24개 부문 역대 최대규모인 51,323점의 출품작들이 경쟁, 1천여점이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선 HSAD, 제일기획, 서비스플랜코리아 등이 4개의 수상작을 내는 데 그쳐 최근 수년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

'칸 국제 광고제'는 2011년부터 '칸 라이언즈 크리에이티브티 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테리 새비지 회장은 이에 대해 "No more Advertising, but Creativity(이젠 광고가 아니라 창조력이다)"라며 "반전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단순한 '알리기'의 시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야만 캠페인이 성공하는 시대"임을 강조했다.

<칸 라이언즈 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 안내

@세미나 스크리닝(12편)

BBDO, PHD, AKQA, BrandOpus, 360i, Quantcast 등 굴지의 광고대행사와 어도비, 유니레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관한 인기 세미나 12편을 선정, 한글 자막과 함께 상영합니다.

@강연(10편)

올해 해외 초청인사는 칸 라이언즈 Terry Savage 회장입니다. 이노션, TBWA, 제일기획,

KT, 이노레드, 서비스플랜, 포토리아에서 주관하는 강연으로 칸 라이언즈 심사위원, 수상자, 음악평론가 등이 연사로 나서 글로벌 캠페인 사례와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케이스 필름(100여편)

캠페인을 2~3분내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필름으로 캠페인의 기획 의도와 다양한 미디어 전략,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친 효과 등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 필름(100여편)

필름 부문과 필름 크래프트(제작 완성도) 부문 수상작 100여 편을 매일 상영합니다. 러닝 타임 100분, 하루 2회 상영(18시&20시)

@포스터(200여편)

포스터로 전시 가능한 부문의 수상작들을 씨네큐브홀에 보드와 모니터로 200여점 전시합니다.

일시-장소: 2016년 10월20일(목)~22일(토) 광화문 씨네큐브

주최: 칸 라이언즈 코리아

후원: 문화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참관비 : 20만원, 얼리 버드 12만원. 예매=티켓몬스터

webmaster@canneslions.co.kr 02-757-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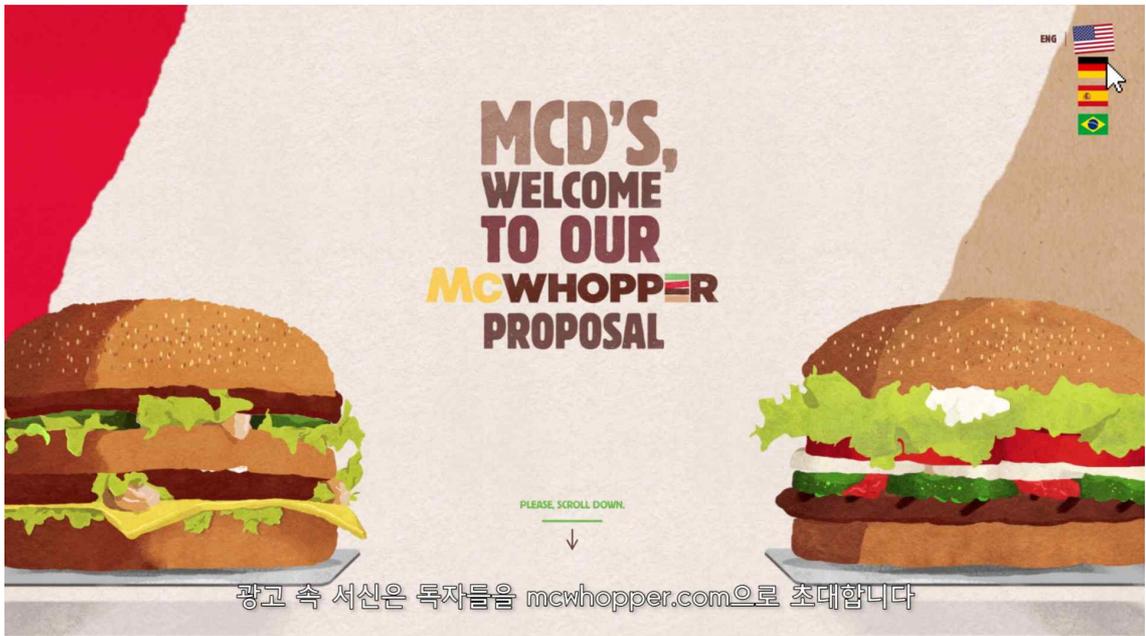
첨부 사진 설명



1. 반기문 총장과 6인의 광고계 거목들이 지난 6월 SDGs를 주제로 칸 라이언즈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위한 캠페인 제작을 호소했다.



2. 영국 하비 니콜스(Harvey Nicols) 백화점의 캠페인 'SHOPLIFTERS'. 백화점에 물건을 슬쩍하다 붙잡히는 사람들을 얼굴만 코믹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해 위트있게 비꼬았다. 도둑질 대신 할인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담은 백화점 할인 광고. 필름 부문 그랑프리.



3. 뉴질랜드의 버거킹 캠페인 '맥와퍼'가 맥도날드에 "와퍼를 만들라"는 엉뚱한 도전으로 프린트 부문 그랑프리를 받았다.



렘브란트의 기하학적 비율을 수집해서 새로운 얼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4. 빅데이터를 활용해 17만개의 화소 데이터로 렘브란트 그림을 완벽하게 디지털로 복원해낸 네덜란드 JWT의 ING생명 보험 광고 'THE NEXT REMBRANDT'가 Cyber와 데이터 활용 부문 그랑프리를 받았다.



5. 왼쪽 상단부터 이노션 김종필 CD, Adobe 강진호 상무, 서비스플랜코리아 염빌 CD, TBWA코리아 김재우 CD, 이노레드 박현우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 제일기획 김민아 CD, 칸 라이언즈 회장 테리 새비지(Terry Savage) -2016 칸 라이언즈 서울 페스티벌 강연자